

## 尿腔牛의 간이수술에 의한 尿道延長術

김 영 민\*

방광에서 배설된 소변이 완전히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그 일부가 역류하여 자궁경관부 혹은 腔의 앞 부분에 고이므로 주위에 염증이 생겨서 불임증이나 수태율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는 尿腔은 대동물 임상에서는 종종 발견되는 비교적 잘 알려진 질병이다.

대체로 나이가 많고 분만의 횟수가 많은 소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나 젊은 소에서도 분만시에 상처를 받았는데 제대로 치치가 되지 않아서 尿腔이 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尿腔에 대한 이제까지의 대책은 腔의 앞쪽에 體長에 대하여 직각으로 腔底面의 조직을 용기시켜 주는 봉합을 하여 소변의 역류를 막아주는 조치를 하는 것으로 완전한 방법이 되지 못해서 시간이 경과하면 그 부위가 다시 이완되어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여기에 소개하는 이 간이수술 방법은 최근에 외국문헌에 소개된 것으로 종래의 방법에 비하여 근본적인 대책이며 수술방법도 비교적 간단해서 임상 수의사들이 야외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몇 마리에 시술해 본 결과 대단히 만족스러웠다.

수술대상의 소를 적당한 장소에 기립보정을 한 후, 尾椎硬膜外마취를 실시한다. 직장내의 속분은 인위적으로 배제시키고, 꼬리는 한쪽 방향

으로 보정시킨 다음 항문과 외음부 주위를 세척과 동시에 소독한다. 질 내부에 고여 있는 소변도 인위적으로 배제시키고 소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순의 외측에서 towel forcep이나 또는 tissue forcep을 이용 질 내부의 尿道開口부와 腔底의 뒷부분이 보일 정도로 외음부를 개장하여 수술시야를 완전히 확보해야 하는데 위의 forcep이 없을 때에는 굵은 봉합사(예:No.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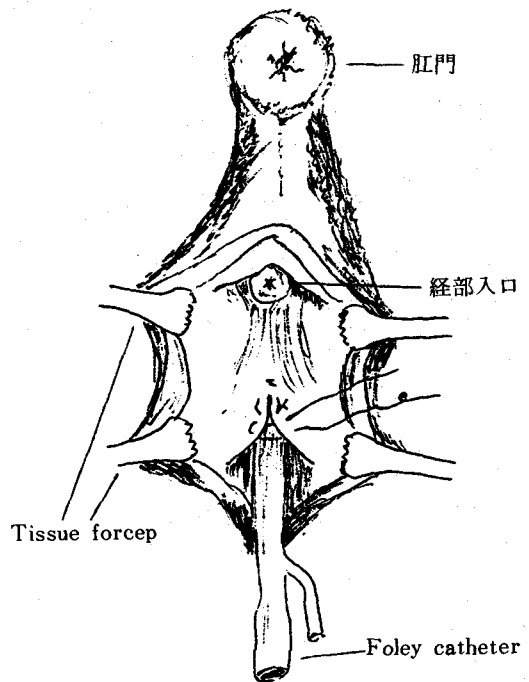


그림 1.

\*오류가축병원

로 支持縫合을 해서 개장을 해도 무난하다.

尿道 catheter를 방광 내에 삽입하고 빠지지 않게 고정을 하는데 작업의 편리를 위해서는 Foley catheter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능률적 이겠다(그림 1참조).

흡수성 봉합사(No. 0~2-0)로 catheter 좌우의 腔底粘膜을 끌어당겨 catheter를 덮어 단순 결절 봉합으로 음순의 전방 가까이까지 이어 나 온다(그림 2참조).

좌우의 점막을  
봉합하여 연장된  
요도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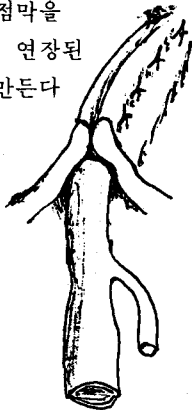


그림 2.

그렇게 한 후에는 봉합된 점막의 상단을 절 단하여 유합을 위한 新鮮創을 만들어준다(그림 3 참조).



봉합된 상단을  
절단하여 신선창을  
만든다.

그림 3.

그 신선창을 역시 흡수성 봉합사로 단순연속 봉합하여 접합케 한다(그림 4참조).

이상으로 사실상의 수술은 끝났는데 catheter 는 3~4일 후에 제거해 주면 되고, 수술 후 치 료는 생리식염수로 수술부위를 가볍게 세척해

절단된 신선창을  
연속 봉합하여  
유합시켜 준다.



그림 4.

외음순 직전까지  
요도를 연장시켜  
주고 3~4일 후에  
catheter를  
제거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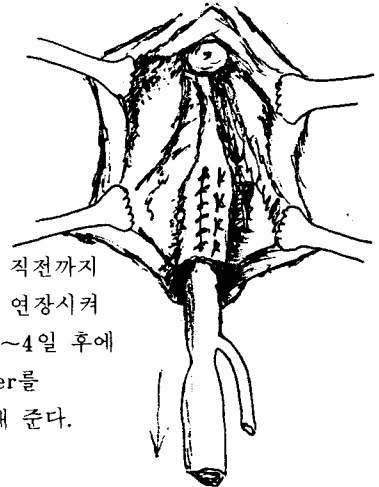


그림 5.

주고, 항생제를 수일간 주사해 주는 것으로 충 분하다. 수술 후 인공수정은 즉시도 가능하나 자연교미의 경우는 한주기 째 늦추는 것이 상 처의 치유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상의 수술 후에는 尿道가 음순의 전방까지 연장되어 있어서 방광에서 일단 배설된 소변은 완전히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질 전방에 고 이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수술을 위해 필요한 기구들

1. towel forcep } 중 한가지로 4 개.  
tissue forcep }
2. 尿道 catheter } 중 한가지 1 개.  
Foley catheter (No. 24~26.) }
3. 봉합과 절단을 위한 몇 가지 기구들
4. 그 외 수술 보조기구들